

“요즘 서울은 세계 문화 중심 중에 하나이니 체코 사람들도 빠져선 안 되겠다.”

주한체코대사님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와의 인터뷰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 (Jaroslav Olša, jr.)(44)는 카렐대학교 철학학부에서 동양학,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국제 관계를 전공했으며 기자와 번역가로서 일을 했다. 1992년부터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90년대 후반 4년 동안 외교부에서 아프리카 부를 경영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짐바브웨와 다른 아프리카 5개국의 대사직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체르닌스키 궁전에서 해석계획부 부장으로 복무했다. 주한체코대사로 2008년 9월에 임명되었다.

야로슬라브 올샤, 주니어는 미하엘라 보프코바(Michaela Vovková) 외교관과 결혼하여 3살이 된 ‘세바스티안’(Sebastián) 아들도 있다. 그의 여러 취미 중 하나는 아프리카에 관한 것 외에도 공상 과학소설에 관한 활동들이 있다. 또한 그는 작가 온드레이 네프(Ondřej Neff)와 공상 과학소설 백과사전(1995)과 다수의 공상 과학 소설집을 엮었다. 그리고 짐바브웨에 관한 책도 몇 권 출판했다. 예를 들면 “짐바브웨의 4대 조각가”(Čtyři generace zimbabwských sochařů)(2007), 짐바브웨 현대문학집 “기우사”(Přivolávač deště)(2003)등.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장기간 근무 경력을 활용하여 지난 해에 “짐바브웨, 잠비아와 말라위의 역사”를 발행했다(오타카르 홀레즈, Otakar Hulec,와 협력하여).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체코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도착해서 첫 몇 주 간의 좋았던 인상들과 좋지 않았던 인상들은 물론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처음 순간들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말과 형식적인 문구로 대신하기는 참 어렵다. 뜻밖의 기뻐던 것들은 청결함과 수준 높은 안전성, 현지 지역의 파트너와 이미 만나본 사람들의 친절이다. 그리고 크게 놀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언급하면 “역동적인 한국”에서의 분주한 생활과 서울과 그외의 지역에서의 교통 마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번에 한국에서 수행하실 임무는 지금까지 머무르셨던 다른 나라에서 하셨던 일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짐바브웨와 대한민국의 비슷한 점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경제 개발을 비교해 보면 그들은 정만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옛날 로디지아(1980년부

터 짐바브웨)는 그때 가장 개발된 아프리카 나라 중 하나였고 한국은 오히려 제일 가난한 아시아 나라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전적으로 다르다. 60년대 로디지아는 GDP 수준이 한국에 비해 몇 배로 높았고, 산업도 발전되었다. 특히, 온 세계 시장으로 나오는 담배를 생산하는 농업 기술은 효과적이었다. 요즘 상황은 완전히 반대다. 짐바브웨 경제는 자국의 정치가들에 의해 다소 붕괴되었다. 올해 1월의 인플레이션은 6.5×10^4 의 172배쯤 퍼센트 수준을 넘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화폐 단위는 천억짜리였다. 그 지폐는 발행되는 순간 달러로 환원하면 겨우 \$30였다.

40년전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은(현재 세계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강대국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본인은 짐바브웨에서 6년이상 머물면서 그 나라의 점진적인(계속 늘어나는 속도로) 부패를 관찰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경제와 문화의 붐을 이루길 바라며, 내 눈으로 직접 나라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보길 또한 바란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한국을 5개월간 보고 느낀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여기서 할 일의 내용과 형태는 하라레(짐바브웨의 수도)에서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어떤 곳들을 방문하셨었고, 그것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섯 달은 내가 색관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곳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다. 지금까지 머물면서 광주, 공주, 경주도 가 보지 못했을 뿐더러 아름다운 섬 울릉도, 서울에서 가까운 강화도조차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가 보았던 곳 중에 밝은 분위기의 부산 해운대나 안동 민속촌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사실 제주도는 좀 실망했다. 왜냐하면 한국 파트너의 열광적인 묘사로 이끌어낸 기대는 사실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곳을 고르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체코의 EU의장직 수행을 끝마친 후, 새로 근무하게 된 한국에서의 관람을 제대로 하려 한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체코인은 대략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말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체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사실 요즘 한국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체코 사람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 목적을 가지고 있진 않다. 그들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직장이나 학업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체코인들은 대학교나 불교 사찰에서 찾을 있고, 운동 코치나 한국 아이스하키 팀의 선수들이다. 그리고 국제 단체와 기업에서 일하는 체코 사람도 몇 명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합쳐 서른 명 정도이다. 내 생각엔 요즘 한국에서 거주하는 체코 사람들의 이름 목록과 10년전에 여기서 거주했던 체코인들의 목록을 비교해 본다면 똑같은 이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다. 그 중 한 예외는 온 가족과 함께 체코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 현지 국적을 얻은 체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체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겠다.

한국에 거주하는 체코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로 어떤 문제들을 처리해 주시고 계십니까?

나한테 묻는 것보다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생각엔 내가 여기서 사는 몇 달 동안 한국에서의 아주 작은 체코 사회는 대사관을 통해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아무 것도 없었다. 여권 재발행, 신생아 등록과 같은 일반 영사관의 업무뿐이었다.

특히 ‘프라하의 연인’ 덕분에 한국인들의 프라하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다. 한국 대중에게 우리 문화의 다른 관점을 소개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토론 같다. 처음에 대한항공의 프라하와 인천 사이의 직행편 운항이 이루어진 이후 프라하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제작자의 관심을 끌만큼 그때 이미 프라하의 역사적 건축물들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프라하의 연인‘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의 제작자가 일반 TV 드라마를 특별하게 제작했고, 프라하를 배경으로 한 아이디어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성공을 가지고 왔다. 프라하의 경치(1회2회만 나왔지만)는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때까지 프라하에 대해 잘 몰랐던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체코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하는 내 동료 대부분도, 한국을 주요 사업 파트너로 생각한다. 투자와 사업기회에 대한 토론은 날마다 이루어진다. 요즘 서울은 세계 문화 중심 중에 하나이니 체코 사람들도 왜 빠져진 안 되는지 알게 됐다. 서울은 뉴욕 필하모니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 컬럼비아 현대 미술, 베트남의 전통적인 공예까지 이 같은 모든 행사로 심원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가능한 한 우리 나라의 것도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우연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선택된 것이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쁘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대사관이 협력하여 서울과 대구에서 체코 디자인 전시회가 열렸고, 제주도에선 체코 예술가의 작품이 절반 가량 전시되었던 유리 박물관도 열렸다.

올해 봄에 인드리흐 할루페츠키 (Jindřich Chaloupecký) 상을 받았던 많은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회가 서울에서 크게 열릴 것이다. 이 전시회는 가장 젊은 체코 예술가 세대 작품의 첫 소개이다. 이 전시회는 또한 한국 내의 다른 곳에서 열릴 수도 있다. 앞으로 체코 문화를 전시회를 통해 소개하는 방법은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후반엔 서울에 체코문화 센터가 설립되기를 바란다. 서울의 체코, 구시가 시청과 비슷하게 지은 건물 내에 식당 ‘Castle Praha’와 협력하여 한 층은 작은 전시회 실과 체코 안내소를 만들려고 한다. 체코의 EU의장직 수행이 끝난 후, 우리 대사관은 이 계획에 노력을 집중하려고 한다.

영화제와의 협력도 시작했는데, 요즘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부산 영화제에서는 체코 영화가 이제 정기적으로 상영된다. 이것보다는 규모적으로 좀 작은, 아이들을 위한 영화제(서울과 부산에서)와 두번째로 큰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도 협력하려고 한다. 거기서는 판타스틱, 공상과학적인 주제가 있는 체코 영화의 짧은 플래시백도 나올 예정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체코 뮤지컬은 서울 극장에서 빠르지 않지만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는 특별 분야이다. 야넵 레데츠키(Janek Ledecký)의

해럴트 공연은 지금까지 200 회을 넘겼다. 가을에는 몇만 명 한국 관람자가 미할 다비드(Michal David)의 클레오파트라를 서울에서 봤고, 올해 5월에 그의 작품 삼총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이 체코 뮤지컬의 마지막이 아님이 확실하다.

작년 가을에 프라하에서 외국 파트너에게 거창하게 프리젠테이션 했던 체코 극장의 소개덕분에 데이비즈께 극장(Dejvické divadlo)은 수원 축제에 참석하려 하고, 한국 관람자들은 아마도 엘지 아트센터(LG Art Centre)에서 바츨라프 하벨(Václav Havel)의 “떠남”(Odcházen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친근한 문학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면, 카렐 차벡(Karel Čapek)과 야로슬라프 사이프르트(Jaroslav Seifert) 전시회로 앞으로 체코 문학 작품의 출판을 지원할 다소 큰 활동을 시작해 볼 계획이다. 한국 독자들은 쿤데라(Kundera) 작품 외에 넴조바(Němcová), 차벡(Čapek), 하벨(Havel), 흐라발(Hrabal)등의 책들을 읽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슈크보레츠키(Škvorecký)의 ‘스웰 시즌’(Prima sezóna)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책 시장에서 젊은 체코 작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쓸 것이고 “체코 도서관”이 설립되기를 바란다. 요즘은 그럴만한 적기이다. 체코 대사관은 일단 체코 출판사와 “책의 세계(Svět knihy)”라는 박람회 조직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 국제 도서 박람회에 처음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또한 “체코 도서관”에 관한 내용들을 제시할 것이다. 대사관은 체코 문학의 한국말 번역 시합을 올해 처음으로 공시했다. 결과는 올해 중순쯤 알릴 수 있겠다. 우리 대사관 활동에 대한 정보들은 www.mzv.cz/seoul 사이트나 www.mzv.cz/soul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개설 초기부터 열심히 내용들을 보완해 오고 있고, 체코 코리아 협회 활동에 대한 정보도 나오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체코-코리아 협회 회원들과 회보를 읽게 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체코-코리아협회와 우리 대사관 사이의 협력은 앞으로의 상호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와 내 동료 3명은 우리의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돕고,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체코 학생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코 유학생들이 우리 활동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좀 아쉽다. 왜냐하면 체코의 한국학은 한국에서 체코 명성을 잘 유지시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2009년 1월

편집자: Michaela Lee

번역: 이병교, Michaela Lee